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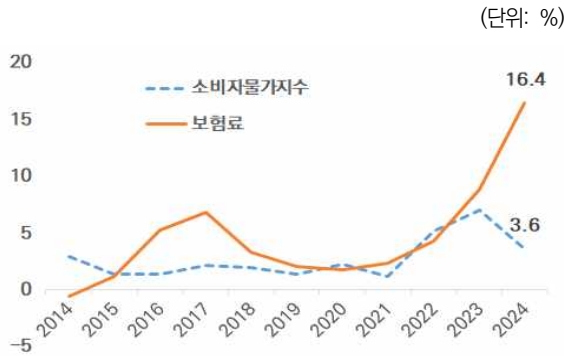
호주의 대형산불,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최근 1년 새 16.4%나 급등했는데, 특히 주택보험료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주택보험 청구 건수도 급증함.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1차 국가기후위험평가에서 기후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 보험 및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철수해 경제시스템에 연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경고함. 또한 호 주국립대학의 연구와 상원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대책 논의가 진행 중임

- 호주는 2019년에 발생한 대형산불, 2020~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대홍수, 2022년 이상고온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영향이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음
 -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2008~2023년까지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해 호주 전역에서 2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2/3인 15만여 명이 2018~2023년 사이에 발생했음
 - 호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재해복구자금조달계약(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 DRFA)¹⁾ 건수도 2014~2018년 1,400여 건에서 2019~2023년 2,000여 건으로 50%가량 증가함
- 최근 5년간 호주의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재난 탓에 지급준비금 및 보험금 지급액이 급등하여 보험료가 크게 올랐고, 특히 주택보험에 대한 영향이 컸음
 - 호주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실이 1990년대 후반 GDP의 0.2%에서 2019~2023년에는 0.7%로 3배 이상 늘어났음
 - 지난 30년 동안 호주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연평균 21억 달러였는데, 주로 홍수로 인한 비용 증가에 의해 최근 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45억 달러에 달함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6.4%나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4.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그림 1) 참조
 - 특히 주택보험료²⁾가 많이 올랐는데, 2004년 대비 2024년에 주택보험료는 평균적으로 4배(2023년에는 28% 상승)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금 청구액은 10배로 증가함(그림 2) 참조

1) 호주 연방정부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정부와 재해를 당한 지역사회에 긴급재정지원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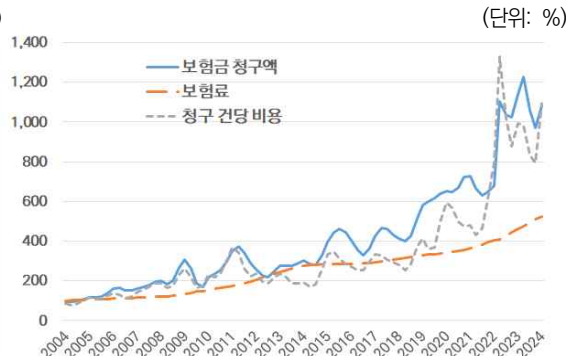
2) 호주의 주택보험은 주택과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화재, 도난, 자연재해(예: cyclone)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2023. 12), "Insurance monitoring")

〈그림 1〉 호주 소비자물가지수와 보험료 변화율



주: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임
 자료: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그림 2〉 호주 주택보험 청구액과 보험료 추이



주: 2004년(100%) 대비 비율,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수치임
 자료: 호주 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ICA)

- 호주 정부는 2024년 3월에 첫 번째 국가기후위험평가(National Climate Risk Assessment)³⁾를 진행했는데, 기후위험에 노출된 지역사회에서 보험 및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함
 - 평가의 목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의미있는 기후정보를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임
 - 경제, 무역 및 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자연재해의 피해가 잦아지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당지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급됨
 -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충격⁴⁾은 인프라와 건축환경(예: 주택 가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에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건 및 1차산업, 식량 등 다른 시스템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함
- 호주국립대학에서는 기후위기에 처한 지역사회를 이주시키는 전략을 국가적으로 세울 것을 권유하였고, 호주 상원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등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호주국립대학의 연구⁵⁾에서는 기후위기에 처한 호주 지역사회를 이주시키는 전략을 국가적으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당국의 설립, 동적리스크 맵핑(mapping) 개발, 물류등록부 개발 등을 주장함
 -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적 계획을 강조하며, 설립된 정부 당국이 모든 이주 절차를 처리할 책임을 맡게 됨
 - 호주 상원의회에서는 2024년 5월 특별위원회⁶⁾를 설치해 11월까지 기후위기가 보험료와 가용성(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⁷⁾하고 있음
 -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로 인해 일부 지역과 사람들이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보험가입을 거절 당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설립됨

3) 국방 및 국가안보, 경제, 무역 및 금융, 건강 및 사회적 지원, 인프라 등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한 11개 분야를 평가함
 4) 보험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음
 5) ANU Institute for Climate, Energy & Disaster Solutions(2023), "Relocating Australian Communities at Risk: Strategies and Actions in Time"
 6) The Select Committee on the Impact of Climate Risk on Insurance Premiums and Availability
 7)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상승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정부, 비정부기구, 보험회사, 기업, 학계 등의 의견을 듣고, 재난지역을 직접 방문함